

카드사에서 '웹드라마' 제작... 왜?

적은 비용 큰 광고효과
제품 노출 거부감 덜해

최근 2~3년 KB국민카드를 시작으로 카드업계에서 속속 웹드라마를 선보이고 있는데 카드사가 왜 웹드라마 제작에 나섰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KB국민카드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래 현대카드·캐피탈, 우리카드까지 웹드라마를 제작했다.

웹드라마란 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주 채널로 제작·공개하는 드라마다. 길이가 짧아 스낵드라마라고도 한다. 일반 드라마 대비 제작비용은 현저히 적지만 웹에서 입소문을 타면 TV드라마 못지 않는 인기를 누리기도 한다.

제품을 노출하거나 소재로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효과를 볼 수 있어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카드업계도 최근 이같은 흐름에 가세했다.

가장 먼저 웹드라마를 선보인 곳은 KB국민카드다. 콘텐츠그룹 T2초TV와 함께 웹드라마 '클라이맥스 전문가'를 선보였다. 이 콘텐츠는 '빙맛코드'에 빠른 전개, 내레이션을 입힌 독특한 구성으로 이달 기준 유튜브 조회수 140만회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에는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도 각각 '김탑장의 이중생활'과 '시크릿 에이전트'란 제목의 웹드라마를 선보였다. 각사는 웹드라마에서 현대카드의 '그린(Green)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오토금융 프로그램 등을 광고했다. 이들 웹 드라마가 비교적 5~10분 짧은 길이에 재미를 위한 풍토형이었다면 전통적인 드라마와 비교적 포맷이 비슷한 웹드라마도 나왔다.

우리카드는 최근 모바일 영상 제작소 '크리



KB국민카드의 웹드라마 '클라이맥스 전문가'.

스피 스튜디오'와 웹드라마 '워크 앤 러브 밸런스(Work&Love Balance)'를 제작했다.

지난해말에 티저영상과 에피소드 1편, 지난 7일에는 에피소드 2편을 선보였다. 오늘은 최종편이 될 에피소드 3편이 업로드된다. 회당 15~20분 분량의 연재물로 구성해 타사 대비 호흡이 길다.

또한 직장인이 겪을 법한 이별과 사랑 등의 소재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차이점이다. 여 주인공 직업을 우리카드의 카드 디자이너로 설정해 자연스럽게 자사제품 '카드의정석 위비온플러스'와 '카드의정석 SSC8(쏘삼)'을 노출했다.

이처럼 카드업계가 웹드라마에 뛰어든 이유는 카드 주 소비층인 2030세대를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다. TV보다 유튜브 등 SNS를 더 이용하는 젊은 고객을 잡기 위해 마케팅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TV콘텐츠보다 대놓고 광고하기도 좋다. 드라마의 PPL(간접광고)에 민감한 시청자와 달리 웹드라마 이용자는 '대놓고 광고해도 재밌으면 괜찮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국민카드 역시 웹드라마 후반에 여주인공이 카드를 꺼내 대놓고 홍보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광고지만 웃기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면서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광고회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광고로는 마케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SNS를 통한 공유와 확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기업의 일방통행식 메시지로 소비자와 소통하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미디어 이용자가 많이 즐겨보는 웹드라마를 선택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울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부안군, 영화상영의날 '미쓰백' 24일 무료 상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24일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하루 2회) 부안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화 '미쓰백'을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미쓰백'은 이지원 감독 작품으로, 우리시대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를 보며 먹먹해 오는 슬픔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온기를 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올해의 영화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이번 영화에는 배우 한지민, 김시아, 이희준, 권소현 등 명품 연기자들이 출연하여 극의 몰입도를 높였고, 이지원 감독의 특집 있는 연출로 꼭 봐야 할 영화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2월부터 부안군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의 날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고정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이 오셔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과 탄식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예술회관 '미쓰백' 영화 무료상영은 24일 목요일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에 선착순 무료로 인장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위한 작업 공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리빙콘텐츠 DIT센터' 오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도 마련, 11일 문을 열고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 공간으로, 3D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

전당에 따르면 'DO'군두군 IT템을 만드는 TOGETHER 우리들의 창작공간'이라는 슬로건으로 11일 '리빙콘텐츠 DIT(Do It Together) 센터' 문을 열었다.

오픈식은 기존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포토존 인화 이벤트와 랩 투어, 예비 메이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오픈 파티' 형태로 진행됐다.

앞서 전당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2018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공모사업(일반 랩)에 선정돼 2억5000만원을 확보, DIT 센터를 구축했다.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최종 65개 기관만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당을 비롯해 2개 기관(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이 뽑혔다.

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2층 196.9㎡(60평) 공간에 구성된 DIT 센터는 교육실, 창의공작실, 목업실, 커뮤니티실, 멀티스페이스, 라이프 리빙실을 갖추고 있다.

이에 메이커들은 각각의 공간에서 교육과 회의, 기획, 전시는 물론 메이커들 간 지식정보를 교류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D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목업 장비, 재봉틀, 기타 다양한 공구 등이 갖춰져

있어 생활 속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현실 속에서 창작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DIT 센터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주의를 필요로 하는 장비들의 경우 안전교육과 장비 기초교육을 필수로 이수 후 사용할 수 있다.

전당은 향후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 향후 수혜 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DIT 센터가 지역 메이커들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써 메이커 문화의 생활에 대한 새로운 역할 수행을 이뤄가는 장(場)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센터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크로스오버 슈퍼스타' 팝페라가수 조시 그로반 온다

미국 팝페라 가수 조시 그로반(38)이 첫 내한공연을 한다.

공연기획사 파파스이엔엠에 따르면 그로반은 2월27일 오후 8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한국 팬들에게 처음 인사한다.

그로반은 '크로스오버계의 슈퍼스타'로 통한다. 열일곱살이던 1998년 거장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70)에게 발탁됐다. 전문적인 성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로반은 1999년 '제42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팝페라스타 안드레아 보첼리(61)를 대신해 리허설에 올라 캐나다 팝스타 셀린 디옹(51)과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깊은 첫 인상을 남겼다.

이후 2001년 셀프 타이틀 앨범 '조시 그로반'을 발매했다. 따뜻한 보컬과 위안을 건네는 감수성으로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가곡 '지라 콘 메', 영화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 등 팝과 오페라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200' 8위에 올랐다. 또 미국 가수 리처드 마스(66)와 작업한 '투 웨어 유 아로 빌보드 핫 컨템포러리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2003년 2집 '클로저(Closer)'에 실린 그룹 '시크릿 가든'의 커버곡 '유 레이저 미 업'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2015년에는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노트르담 드 파리' 등 뮤지컬 명곡들을 75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재해석



한 앨범 '스테이지스(Stages)'로 스펙트럼을 넓혔다.

현재까지 정규앨범 8장을 발매해 300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이번 공연은 3년 만에 선보인 8집 '브리지(Bridge)' 기념 투어의 하나다.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가사를 구성했다. 이번 내한에서는 타이틀곡 '리버(River)' 등을 들려준다.

/뉴시스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